

4주차

새로운 사회계층, 사족(士族)의 등장:1520년대

김 성 우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부를 쌓는 사람들

- 관료층
- 외방 유력층

02. 농장(農庄)의 발달

- 16세기 지주제의 발달
- 농장제의 발달 추이

03.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(1): 전가사변형 면제권

-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
-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
- 1524~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

04. 사족의 특권(2): 정직(正職) 독점권

-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: 관직
- 잡류층(雜類層)의 사회적 지위
- 16세기 사족층의 무반(武班) 인식

05. 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- 조선 초기 유향소(留鄉所)의 설치와 폐지 추이
-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
- 1525년(중종 20)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
- 향약(鄉約) 실험
- 서치(序齒) 논쟁
-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

2차시

농장(農庄)의 발달

학습목표

- 16세기 지주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.
- 농장제의 발달 추이를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
-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
- 1524~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

16세기 지주제의 발달

농업경영 방식

농장제
(農庄制)

병작제
(并作制)

농장제(農庄制)

- 주인이 소유 토지에 자신의 노비를 투입하여 경작
- 주인이 노비들의 활동 감시, 농사(農舍) 설치, 관리자 파견
 - 주인: 보호, 시혜하는 사람
 - 작인: 예속인, 노동력 제공



조선시대 경작

병작제(并作制)

- 주인이 소유 토지를 농민에게 대여
- 생산물을 주인과 작인(作人)과 일정 비율로 분배
- 노비 등 예속 노동력 확보가 부족할 경우에 병작제 증가



조선시대 경작

16세기 농업 상황

- 벼농사: 경상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산
- 여전히 밭농사(보리, 콩 등) 우위
- 낮은 토지 생산성 + 양인들의 노비 투탁(예속 노동력 확보)
→ 농장제 선호

병작제 시행

- 15~16세기: 제한적으로 시행
 - 토지가 척박한 땅
 - 경작 상황을 감독할 수 없는 곳
- 17세기 중반 이후: 대세를 이룸
 - 벼농사의 본격적 실시
 - 노비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

농장제의 발달 추이

양인층의 광범위한 몰락

- 연산군의 폭정: 토지나 가옥을 상실하는 하층 양인 증가
- 중종 이후: 양인층의 토지 방매, 유실 상황 심각

“ 전라도 순천에는 한 고을에서 2~3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뿐이고,
나머지는 경작할 땅이 없다.”

” 거부(巨富)는 그의 집에 농장을 설치하고 도망자들을
끌어모으고 있다.”

16세기 지주들의 재산 증식

- 국역 부담과정에서 파산, 몰락한 양인층의 토지를 사들임
- ‘압량위천’, ‘양천교혼’을 통해 양인을 자신의 노비로 만듦

16세기 지주들의 재산 증식

- 지주: 토지 소유자 + 노비 소유자
- 16세기 지주제: 토지와 노비의 결합 → 농장제로 운영됨
- 토지보다 노비의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음

마무리

- 농장제 : 노비 등 예속 노동력을 이용한 농업 경영
- 병작제 : 작인들과 계약을 통해서 농업 경영

마무리

- 16세기: 국역체제 붕괴로 양인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몰락하여 노비로 흡수
- 관료와 유력층은 대농장 경영

다음 차시에서는

-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(1): 전가사변형 면제권

SOURCES

[출처01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530>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